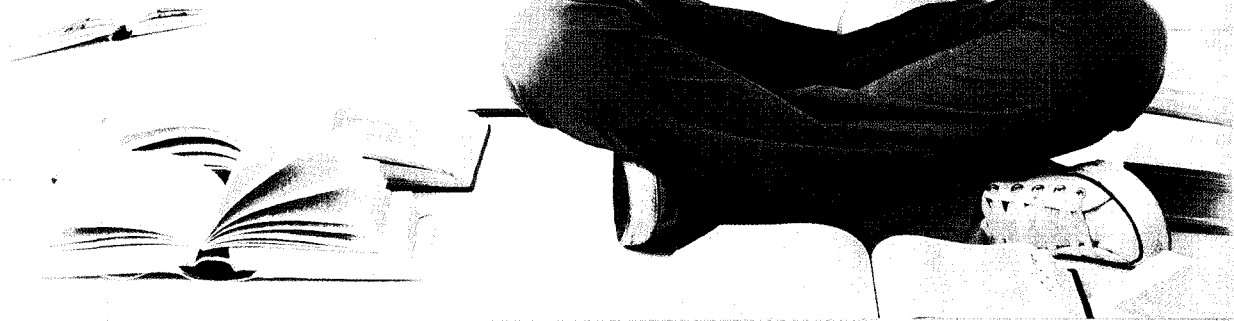


상하수도기술사의 모든 것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상하수도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상하수도기술사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고자 관련된 정보와 합격자 수기를 3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수질관리 전문가, 시대가 요구한다

녹색 비즈니스를 이끌 '그린칼라(green color)'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 뉴딜정책'과 맞물려 다수금 주목받고 있는 '상하수도기술사'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이끌 그린칼라로 평가된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근 펴낸 저서 「뜨겁고 평평하고 봄비는 세계(원제 Code Green)」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린(green)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그린에너지 산업을 이끌 그린칼라가 많은 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질관리 분야의 최고 자격인 상하수도기술사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대의 요구라 볼 수 있다.

상하수도기술사는 1974년 토목기술사로 신설된 후 1991년 개정되어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 기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련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상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되고 모든 상수원이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을 높여 생활환경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광역 및 지방 상수도망을 확충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수질관리 업무를 하는데는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전공 제한이 없다. 굳이 환경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유사 학과 출신도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질관리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 입사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입사 후에는 자격수당이 주어지기도 한다.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에서 진행 되는 다양한 상하수도 관련 회의에 참석 기회를 얻게 되

고 상하수도 사업소와 관련 기업체 등에 기술자문으로 초청되기도 하며, 5급 공무원 특채 지원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또한 상하수도 설계, 시공,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및 환경관련 기업체에 진출 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정수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고, 5년 이상 지나면 상하수도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

업무능력도 자신감도 **쑥쑥!** 도전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정득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제가 서울시청 치수과로 발령을 받았던 해 9월 엄청난 비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한강 유람선이 떠내려 가다가 성산대교에 부딪치면서 침몰되는 바람에 40여 명이 실종되었고, 성내 풍납지역의 침수, 중랑천 제방의 붕괴 위험, 급기야는 한강제방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 '서울시 수행 항구 복구 3개년 계획'이 부랴부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기술사, 수자원기술사들을 처음 만나 그들과 머리를 맞대며 빗물 펌프장 용량, 유수지 용량 등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하수도 분야에 관심을 가져 미국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수질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뉴욕과 팔당상수원 수질보호기법 비교」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상하수도기술사'였습니다. 앞으로 고도정수처리, 하수 고도처리, 하수도정비 BTL사업 등 환경사업 물량이 쓸

아져 나올 텐데 상하수도기술사 인력이 절실히 부족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퇴직 전에 기술사를 취득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일단 합격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 회의를 할 때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도 모든 업무가 시험 공부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집근처 도서관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 후 몇 번의 실패를 딛고 드디어 2008년 12월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니 우선 실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공정 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또한 공정 보고회나 설계검토 회의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상수도시설기준' 책을 펴고 설명하니 훨씬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업본부 내외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기술사반 강의를 진행할 때도 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실무 경험과 상수도시설기준에서 제시된 이론을 접목시켜서 설명을 하니 한층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을 딴 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